세인트루이스는 18일 김광현과 계약한 뒤 입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존 모젤리악 단장이 김광현에게 등번호 33번이 달린 유니폼을 전달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빅리그 꿈 이룬 김광현 좌완 카드 얻은 STL '윈윈'

2년간 총액 800만달러…연간 150만달러 옵션 · 마이너 강등 거부권도

김광현(31)은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이뤘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좌완 선발 카드를 얻었다.

세인트루이스는 1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현과의 계약을 발표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계약조건은 2년간 총액 800만달러고 연간 150만달러의 옵션도 있다. 또한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도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형은 2007년 SK 와이번스에서 데뷔, KBO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로 성장했다. 2019시즌까지 줄곧 SK 유니폼을 입고 통산 136승77패2홀드 평균자책점 3.27의 성적을 올렸다.

KBO리그에서 맹활약했지만 김광현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경쟁하는 메이저리그를 꿈꿔왔다. 지난 2014 시즌 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빅리그 진출을 노렸지만 샌디에이고와 최종 계약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김광현은 팔꿈치 수술을 받는 등 힘겨운 시간도 있었지만 이를 이겨냈다. 수술로 인해 2017시즌엔 아예 뛰지 못했지만 2018년 11승8패 평균자책점 2.98로 재기에 성공했고 2019시즌에는 17승6패 평균자책점 2.51로 맹활약했다.

2019시즌이 끝난 뒤 김광현은 다시 한 번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K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으나 구단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빅리그 도전을 받아들였다.

김광현이 포스팅 되자 현지에서는 세인트루이스를 비롯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LA 다저스, 시카고 컵스, 뉴욕 메츠, 캔자스시티, 애리조나 등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좌완 선발 투수 영입이 급한 세인트루이스가 결국 김광현과 사인하게 됐다.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전통의 강호 세인트루이스는 지난 시즌 91승71패로 지구 우승에 성공했다. 선발진은 잭 플래허티를 필두로 56승을 합작했지만 믿을만한 좌완 투수가 없는게 약점이었다. 지난 시즌 162경기 중 좌완 투수가 선발 등판한 것은 단 2번(2경기 모두 제네시스 카브레라) 뿐이었다.

김광현을 영입하면서 2020시즌 세인트루이스는 총 6명의 선수가 선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즌 선발로 활약한 플래허티, 마일스 마이콜라스, 다코타 허드슨, 아담 웨인라이트 등과 불펜에서 선발 복귀를 노리는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새롭게 합류한 김광현이 후보다.

총 6명의 선수 중 좌완은 김광현이 유일하다. 우완 선발 사이에서 유일한 좌완 김광현의 가치가 빛날 수 있는 상황이다.

존 모젤리악 단장은 김광현이 선발 또는 불펜에서 활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인트루이스 포스트-디스패치는 "선발과 불펜에서 모두 활약할 수 있지만 김광현은 스프링캠프에 선발투수 자원으로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입단 기자회견에서 김광현은 보직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선발이 되는 것이 최고 시나리오지만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되는 것이 첫 번째"라며 "선발이든 구원이든 팀에서 정해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도전했고 포기하지 않았다… 女축구, 벨과 함께 희망 쏘다

동아시안컵 결승서 일본에 0-1 敗…준우승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0월 영국 태생으로 영국과 독일 이중국적 소유자인 콜린 벨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여자대표팀 감독으로 외국인이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벨 감독의 계약기간은 오는 2022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본선까지 3년이다. 이제 우리 여자축구도 전환기를 맞아야한다는 판단과 함께 외국인 지도자와 함께 긴 안목으로 호흡하려한 축구협회의 선택이었다.

때문에 벨 감독의 데뷔 무대인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은 결과보다는 내용, 지금의 결실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벨 감독 역시 대회를 앞두고 "일본과 중국 모두 강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내년 2월 올림픽 최종예선을 앞두고 있기에 더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고 각오를 말했다.

여자대표팀의 가장 큰 현안인 사상 첫 올림픽 본선진출을 위한 무대가 내년 2월 제주도에서 펼쳐지기에, 벨 감독도 이번 대회를 적절한 담금질 무대로 삼겠다는 복안을 품었다. 하지만 동시에 벨 감독은 "우리가 치르는 모든 경기를 다 이기는 것"이라는 다부진 목표를 추가했다.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대표팀이 지난 17일 오후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일본과의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최종 3차전에서 0-1로 패했다. 경기 막판에 나온 페널티킥 실점이 한국의 우승을 무산시켰다.

아시아 최강을 거의 잡을 듯 몰아붙였던 경기다. 마냥 투지로 달려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아래 펼쳐진 것이라 더 고무적이었다.

준비된 시나리오 속에서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팽팽한 승부였는데, 경기 막판 승리의 신이 한국을 외면했다.

후반 40분 상대 슈팅을 막는 과정에서 수비수 심서연이 핸드볼 파울을 범해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이를 키커로 나선 모미키 유카가 성공시키면서 균형이 무너졌고 0-1 스코어로 경기는 마무리됐다.

비록 14년만의 우승이라는 결실을 맺지는 못했으나 이번 대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비전'은 보여준 대회다. 아쉬움이 크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콜린 벨 감독은 일본전이 끝난 뒤 "일본이 시상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심장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다"는 파격적인 소감을 남겼다. 승부욕 단단한 지도자와 함께 내일의 희망을 쏜 여자축구다.

'생애 첫 KPGA 대상' 문경준 4관왕…"아버지께 영광을"

문경준(37 · 휴셈)이 생애 첫 KPGA 대상의 영예를 안는 등 4관왕에 올랐다.

문경준은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2019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2015년 '제34회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우승하며 KPGA 코리안투어 통산 1승을 기록 중인 문경준은 이번 시즌에는 우승 없이 준우승 1회를 포함해 톱10에 7차례 이름을 올렸고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컷통과하며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문경준은 올 시즌 평균 70.179타로 '덕춘상(골프존 최저타수상)'과 선수들의 투표로 한 시즌 동안 갤러리와 소통에 앞장서고 KPGA의 위상을 높인 선수에게 주어지는 '스포츠토토 해피투게더상', 한국골프기자단이 선정한 '2019 베스트 플레이어 트로피(Best Player Trophy)'까지 석권, 4관왕에 등극했다.

문경준은 "남의 일로만 여겼던 큰 상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동료 선수들과 저를 응원해주는 팬, 골프 팬 등이 있어서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열심히 도전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경준은 지난 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아픔도

겪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받치겠다"고 밝혔다.